

연중 제 4 주일
(구라 주일)

기도서 P. 337 A해

- 1독 (소 포 2, 3.3, 12-13절)
- 2독 (고 린 전 1, 26-31절)
- 복음 (마 태 5, 1-12a절)

숲 정 이

발행인	법	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1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③5098)

□ 강론 □



나환자를 도움시다!

송 크리스티나 수녀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한 구라주일입니다. 아직도 수 많은 나환자들은 우리 사회의 편견 때문에 천벌을 받는 죄인처럼 천대와 멸시를 당하고 얼굴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면서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이 멀었으니 그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자기의 탓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탓도 아닙니다." 하느님의 놀라운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기 위한 것입니다"(요한 9, 1-3).

모든 질병이 반드시 죄의 값으로 하늘에서 내린 천형병(天刑病)이 아니라 죄를 요한 복음서에서 제시합니다. 나병(문둥병)도 결핵병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만성 전염병입니다. 그러나 나환자는 육체의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가장 심한 소외의식 속에서 그 육체적 고통에 비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교회의 많은 관심과 의학의 발달로 나병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으로 제명되어 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나환자들의 소외감을 없애주고 희망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들의 넓은 이해로 우리들 마음과 마음의 장벽을 깨고 통로를 열어 서로 사랑을 나눕시다. 사랑은 바로 마음의 영양제입니다. 사랑만이 질병, 빈곤이 빚어내는 부조리를 극복하게 하고 인간관계의 정상화를 갈망하며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인간관계의 아름다운 정상화(正常化)를 이룩하는 오직 하나의 길일 것입니다.

나환자들은 바로 「우리 이웃」입니다. 이웃은 「남」이 아니라 또 하나의 「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하신 예수님의 교훈은 「이웃사랑」이 그대로 「내 몸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그 한 사람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전체의 고통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하는 일은 비단 고통받는 이의 소망이나 책임이 아니라 인간 전체의 소망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자각해야겠습니다. 고통중에 있는 이를 위로하고 기쁘게 해주면 그의 생활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개선되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자신의 불행은 못침아 자살을 기도한 사람이 주위사람의 협조로 위안을 받아 다시 용기를 얻고 내일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리 성모의원 원장수녀)



한 가 위

「추석이 다가옵니다. 서울역은 귀성객들로 터져 나갈 것만 같습니다. 고속버스 차표는 매진된지 오래입니다. 콩나물 시루인 시외버스는 견디다 못해 고무풍선이 됩니다. 모두들 고향을 찾습니다. 어른께 인사하고 오손도손 회포를 풀니다. 선조께 차례를, 그리고 성묘도 갑니다. 햅쌀밥, 햇과일이 더욱 구미를 당깁니다. 깨끗하게 차려입은 한복에, 많은 가을 공기는 한가위 정취를 더 더욱 듭니다.

나환자들도 추석을 느낍니다. 그들도 고향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어릴적 같이 놀던 소꿉장난 친구들도 있습니다. 조상에 차례와 선조께 성묘도 가고싶습니다. 어쩌면 조상 묘앞에 잔디라도 움켜잡고 폭 숙여 숙이 후련토록 울고만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향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키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이도 없습니다. 반겨줄 이도 없습니다. 피하고 수군거리고... 다만 천대 뿐입니다. 왈각 솟는 향수를 등근달 쳐다보며 손수건으로 달랠니다.

나환자와 추석, 없기만도 못한 한가위...차라리 없다면 쓰라린 마음의 상처나 받지 않을 것을...

존경하옵 여러분, 추석 잘 지내세요. 그리고 우리들 나환자를 위하여 항상 협조해 주시는 은인 여러분들께 추석을 맞이하여 삼가 인사드립니다.

이는 어느 나환자가 그들을 돕는 분들에게 보낸 글이다. 이 얼마나 서글프고 찡그러진 한가위인가?

가장 보잘 것 없는 하나- 바로 주님이신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남들로부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무교동의 술집 아가씨들조차 매일 백원짜리 한 낚석을 모운다는데...

구라주일은 무엇을 하는 날인가?

숲 정 이 산책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돕자
(마태오 8장 1-4절)



기 도 합 시 다

78년 1월 23일 오후 7시반 전동성당에서는 교구 정의 평화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의평화 기원 미사가 봉헌되었다. 소위 「3·1절 명동 기도회 사건」으로 고통받다가 풀려난 신부와 목사의 인사가 있던 이날, 전동성당은 이층 성가대석과 회랑을 메우고도 자리가 모자라 3시간에 걸친 행사가 끝날 때까지 서있어야 하는 사람이 많았다.

교구 사제단과 다른 교구에서 온 사제들 70여명이 공동 집전한 이 미사에서, 김재덕 주교는 “평화를 원하면 폭력을 거부하라”는 교황 바오로 6세의 78년 평화의 메시지를 상기시키면서 「이땅에서 제도적인 폭력이 근절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자」고 인사를 했다. 이어 3·1사건으로 옥고를 치룬 함세웅 신부와 문정현 신부를 소개하고 문익환 목사를 특별히 소개했다. 많은 목사와 갈려나간 형제들, 신자들은 이들이 소개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했다.

함세웅 신부는 강론에 앞서 “뜨겁게 기도해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인사하며, “전주교구의 교구장을 머리로 하여 하나로 일체된 모습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함신부는 강론에서 투가복음 1장 46-55절, 4장 16-19절의 성경말씀을 근거로 교회(크리스찬)의 역할(사명)을 - “권력에 짓밟히고 억눌린 사람을 해방시켜 주어야 하며, 재산을 가진 자들에 의해 부당하게 수탈당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야 하며, 명예를 지녔다고 교만하게 구는 자들에게 차별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사람값을 할 수 있게 들어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함신부는 우리나라의 현실정은 어떠한 체제의 유지에 급급하다보니 그에 의해 억눌림을 받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함신부는 이러한 시점에서 “교회가 기도만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않된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십자가의 길은 성당을 장식하는 그것으로 그쳐서는 않된다”고 지적하며 “십자가의 길은 고통받는 형제들의 고통에 동참해서 그들의 고통이 영광의 부활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자들의 기도에서는 <교회>, <노동자>, <양심수인>과 <가족들>,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 특히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적에는 「하느님의 뜻을 알면서도 몸을 사리는 비겁함, 노동자와 학생들의 움직임이나 쳐다보아야 하는 부끄러움」에 용서를 빌며 「용기 주시기를 간구」했다.

미사 후에 문정현 신부, 함세웅 신부, 김승훈 신부, 문익환 목사의 인사가 있었다.

문신부는 그의 인사에서 “아직도 대부분의 양심수인들이 추운 겨울을 감옥에서 떨며 지내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을 남겨두고 나온 부끄러움으로 고통중에 있다”고 말하며, “문신부가 나왔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문신부 한 사람의 구속여부는 역사의 흐름에서 볼 때에는 한 점에 불과하니,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멈출 수 없는 일이며 억압받는 작은 형제의 해방을 위해서 또 억압 자체를 이땅에서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신부는 「기독교는 해방의 종교」라고 힘주어 말하며 남미의 까밀로 토레스 신부와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 까밀로 토레스는 볼리비아 사회의 억압과 착취의 체제에 맞서 사회정의를 실현키 위하여 민중의 편에 서기로 결심하고 분연히 일어섰으나, 흔히 그러하듯이 당국은 그를 박해하고 공산주의자로 몰기도 했다. 그는 억압의 체제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기도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억압과 착취의 현실을 고발한다고 시정되는 것도 아니고, 설사 시정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부정부패가 다른 쪽에서 터지므로 억압 자체는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날로 늘어가기만 했다.

그래서 토레스 신부는 이 엄청난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폭력을 쓸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비폭력을 근본으로 하는 신부로서는 실로 놀라운 결단을 한 것이다. 토레스 신부는 목주를 굴리던 손에 총을 쥐었다. 그러나 그는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억압하는 폭력의 총에 맞아 죽었다. 그래서 김지하(프란치스코) 시인은 그의 폭력을 「사랑의 폭력」이라고 불렀다. 이럴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말해야 하는가?

이등박문을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역사는 안중근의사의 무죄를 입증해 주고 있으며, 그 정의로운 행동을 찬송하고 있다.

문신부는 “이제 우리는 참다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조용히 검토해보고 점검할 시점에서 있다.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게’ 기도하자”고 인사를 마쳤다.

함세웅 신부의 감사 인사, 김승훈 신부의 무엇이 잘된 일인지 모르겠다는 인사, 문익환 목사의 「교도소 체질」이라는 웃음 속의 뼈아픈 인사로 행사가 모두 끝났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끝난 시간은 밤 10시 25분.

가 족 으 로 초 대

노력하는 만큼의 보답을 얻게 해 드립니다. 그 보답은 하느님의 사업도 하실 수 있고, 사람다운 생활도 보장해 드립니다. 교우분들의 애호와 성원으로 자카은 한국 온수 보일러 (연탄 보일러, 가정용 목욕탕)는 해를 거듭하는 동안, 제품개 대한 자신과 애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효율이 높고 수명이 긴 본제품을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가족이 되실분을 초대 합니다.

<아 래>

- ① 시, 군, 읍, 면소재지 (본당 또는 풍소관위)
- ② 지갑 계약금은 없고 적극 후원해 드립니다
- ③ 간단한 교육으로 누구든지 시공할 수 있음
- ④ 각 단위별 선착순 (선용과 의욕만 있으면 충분조건)

한국 온수온돌 공업사 호남지사

지사장 한 동 암(모세)

연락처 : 이리시 인화동 2가 65, 열관리 연구소

전화 이리 8629, 군산 3032.

□ 구라 주일에 부쳐 □



생 일

나환자라고 인간이 아닌가? 나병이 들었다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다. 그들도 인정이 있고 의리가 있고 고마움을 알고 있다. 그래서 해마다 12월 17일이면 입원실의 환우(患友)들은 스스로 주머니에서 몇푼씩 모아 엠마(Emma Freisinger)원장의 생신을 축하해 드린다. 어떤 해는 축하 케이크로, 또 어떤 해엔 조출한 잔치상으로... 지난 겨울에는 지독하게 추웠다. 안되겠다... 올해 원장님 생일 선물은 전기담요를 하나 사드려야지... 종일 환자를 위해 일하시다 냉방에 주무시다니... 전기담요라도 하나 사서 잠이라도 좀 따뜻하게 주무시도록 해드려야지...

사실 원장(Emma)은 냉방에 잔다. 2백여평이나 되는 병원 본관에 스팀이 있지만 온직원이 이용하는 낮에만 조금 틀렸다 겠다 하고, 직원들이 다 퇴근한 밤엔 원장 혼자 사무실이자 침실인 방을 위해선 스팀을 돌리는 일이 절대로 없다.

그래서 환우들은 비싼 전기담요를 생일선물로 정했고, 조금씩 더 내자고 사발통문을 돌려 대구시내 큰 백화점에서 알맞은걸 정성드려 골라 왔었다.

“어머님, 부디 잠이라도 좀 따뜻하게 주무셔서 우리들 위해 오래오래 건강하소서...” 하고 축하드렸다.

그런데 며칠후 원장실에 있어야 할 전기담요는 엉뚱하게도 수위실에서 살짝걸 꿇은 D군이 덮고 잔다는게 아닌가?

화가 잔뜩 난 어느 환자가 “원장님을 위해서... 어려운 우리들이 정성을 다해 사드린 것인데... 도대체 이게 됩니까? 주는 사람의 성의를 무시해도...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에, 고마워요. 여러분들의 뜻을 잘 압니다. 그러나 수위실의 D군은 냉방에 자고 나는 전기담요로 따뜻하게 자고?... 말도 안되는 소리... D군은 꿇지만 환자입니다. 나는 건강하잖아요? 그가 냉방에 자는 한 내게 어찌 편한 잠이 오겠습니까?”

원장은 계속해서 말했다. “분명히 아세요... 그들을 위해 내가 있지, 나를 위해서 그들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이땅의 나환자들을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어느 목자의 편지 한 귀절이 자꾸만 생각난다. —「...불쌍한 나환자를 주님 대하듯 하시는 엠마 회장님.」

※ 이 글은 한국 가톨릭 나사업과 연합회에서 나오는 유인물에서 옮긴 것이다.

매월마다 도와주신 분들의 도움 내용을 적고, 나환자들이나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의 글도 소개하는데 위의 내용은 <77-7호> (77년 8월 1일자)에서 옮겼다.

엠마는 한국 가톨릭 나사가과 연합회장 책임을 맡은 처녀로, 그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숲정이 270호(78. 1. 22)를 참조하기 바란다.

나환자들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분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면 된다.

【630-51】 경북 칠곡군 칠곡면 읍내동 1140 한국 가톨릭 나사업가 연합회
엠마 프라이징거 회장

요십이 (235) 광병오

15년후엔
1인당소득이
7천7백달러
가 된다고...

물가안정에대한
대책이더급한데
그런소리는않고...

나도15년후의
일을하나
발표하자

15년후엔
나는
어기아빠가
된다

☆ 교우님들의 협조를... ☆

문 의 상 실

문 정 실(세시리아)

☎ 군산 6224

군산시 죽성동 영동 파출소 옆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업(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 원아모집 □

성 모 유 치 원

자 격: 만 5세-6세 어린이
기 간: 2월 1일-2월 28일
주 소: 전주 중앙성당 내
전 화: ☎ 6669, ☎ 3874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배드로)

*육교역 중앙 시장동

(전화 ☎ 4577, 5789)

□ 이전 개업 안내 □

표구, 병풍, 보료, 스킨

문 화 양 행

하 정 희(엘리사벳)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2-3170, 6123

교우님들의 많은 협조를...

전 교 사 채 용

뜻있는 분 연락을
연락처 ☎ 이리 2325

인 원: 1명
제출서류: 이력서, 영세증명서,
사진 1매

기 한: 1월 31일까지, 창인동성당
면 접: 2월6일 오전 10시, 사제관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영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오늘은 구라주일...나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심성의껏 도움시다

1. 사제양성 후원을 위한 강론 연수회(1월 29일<일> 오전11시, 가톨릭 센터)
각 분당에서는 빠짐없이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사제양성후원회 공문 78-1호 참조 바람)

2. 교구 연합 제작 완료
교구 연합이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제작 완료 되었습니다.
한정부수(500부)인지만, 각 분당 비치용으로 1부씩 증정하고, 나머지는 인쇄비 500원씩으로 나눠 드리오
니 각 분당에서는 필요한 부수를 1월 31일까지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교례회에 참석해서 회비를 내신 분은 분당 사무실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3. 성 빈첸시오 아 바울로회 이사회 분기회합(일시...1월 29일<일> 오후 1시, 장소...신태인 천주교회)

4. 중고등 연합회 정기총회(2월 12일 10시-오후 2시, 가톨릭 센터)
① 각 분당 학생회장 및 지구장은 1년간 사업보고서 3부씩 지참 바람(회비 500원)
② 제20대 연합회장단 입후보 희망자는 2월 8일까지 분당신부의 추천 언어 신청하기 바람

5. 교구 교리교사 제 10 차 연수회 무사히 마쳤습니다(110명 수료)
□ 생활종교...서해방송(1월 29일 오전 7시 40분, 김준호 신부 방송)
구정관계로 2월 12일분 분당소식은 2월 5일분 소식과 함께 1월 31일<화>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흥석
보좌 신부 김진배
보좌 신부 법영석
사도 회장 이복식

1. 율례회 ① 사도회 (29일 공식미사 후, 유치원)
② 어머니합창단 (2월<목>오전 10시 반, 강당)
③ 성심부녀회 (3일<금>오전 11시, 강당)
2. 중앙 신용조합 제5차 정기총회: 오늘 오후 1시반, 중앙성당
3. 성지가지 반납 바랍니다 (6일까지, 사무실에)
4. 구정합동 위령 미사 (절수 6일까지, 사무실에)
5. 성모 유치원 원아모집 (광고 참조 바람)
□ 지난주 봉헌금: 135,295원

(노송동)

전화 ② 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박종용

1. 재속 형제회 율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사도회 상임 위원회: 오늘 밤 8시
3. 대학생회 피정: 2월 4일<토> 오전 9시부터
4. 구정 합동 위령미사 (예물 접수는 2월 5일까지)
5. 신년도 교무금 신입: 오늘 각 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55,595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유제상

1. 사도회 임원: 회장-유제상, 부회장-이준민, 김용식, 최남남 제경(부장-김은식, 차장-이성기) 선교(부장-김종태, 차장-이영남), 봉사(부장-고정수, 차장-김찬영), 전례(부장-전갑균, 차장-이철중)
2. 제대초 봉헌 감사합니다-장윤옥(테레사)할머니
3. 학생회 정기총회: 미사 후, 회의실에서
4. 보미사단 단합대회: 1층 회의실로 집합바람
5. 구정 합동 위령미사 봉헌 있습니다
6. 애령회장에 이귀연(분도)씨, 수고하시겠습니다
□ 축 결혼! 김형천(에르니노)군, 허옥주 양, 29일
□ 축 합격(진학교)! 한준수(도미니코), 많은 후원을
□ 지난주 봉헌금: 59,335원, 1/10정신으로 정성껏...

(복자)

전화 ⑤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상임위원회: 다음 주일 공식미사 후
2. 가톨릭 성가집 사용, 사무실에서 원가로 위탁판대 하오니 구입 바람 (성가연습-공식미사 전)
3. 복자 부녀회 임원개선: 고문-봉영숙, 오재희,

임귀님, 회장-유순자(마리아), 부회장-김복수(바울라), 최복주(첼마), 총무-이순현(아메스), 회계-이호재(다시안나), 감사-허순덕(테레사)

- ※ 총회-2월 12일 공식미사 후, 강당
4. 신용조합 이사회: 공식미사 후
 5. '보속하는 정신으로 성미운동에 배가름'...
 6. 하늘의 문 Pr. 주회: 매주 목요일
□ 지난주 봉헌금: 116,240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1. 애령회: 공식미사 후
2. 중고학생 총회 및 졸업생 송별회: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49,125원, 감사합니다

(숲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1. 요한회 율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빠짐없이 참석바람
2. 부녀회 성경연구 중고생 성가 지도에, 수고 주신 부산 마카엘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3. 파티마 성모상 모시고 묵주의 기도 봉헌 (매주 공식미사 후) 하오니 묵주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영의봉 재경위원장께서 직장 관계로 사임, 후임으로 박해근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5. 학생회 쉼 안내: 중등부-오후 3시, 고등부 오후4사
6. 반화할 일정: 진북 2동 1반(2월1일), 2반(3일), 3반(5일)/진북1동(7일)
□ 지난주 봉헌금 120,66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한술
보좌 신부 이윤유
사도 회장 유영석

1. 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 1시 반
2. 애령회: 10시 미사 후
3. 파티마 새 성당 추진 위원회: <월> 밤 7시 반
※ 새 성당 축성 예정일-4월 14일
새 성당 주일미사-오후 2시
4. 교육 분과위원회 모임: <화> 저녁 7시 반
5. 봉사 분과위원회 모임: <수> 저녁 7시 반
6. 부활 영세자 등록 마감: 다음 주일까지
7. 교리안내 학생-주일 9시 미사 후
일반-주일 10시 미사 후
청소년-<수> 저녁 7시 반
직장인-<금> 저녁 7시 반
□ 지난주 봉헌금: 148,230원